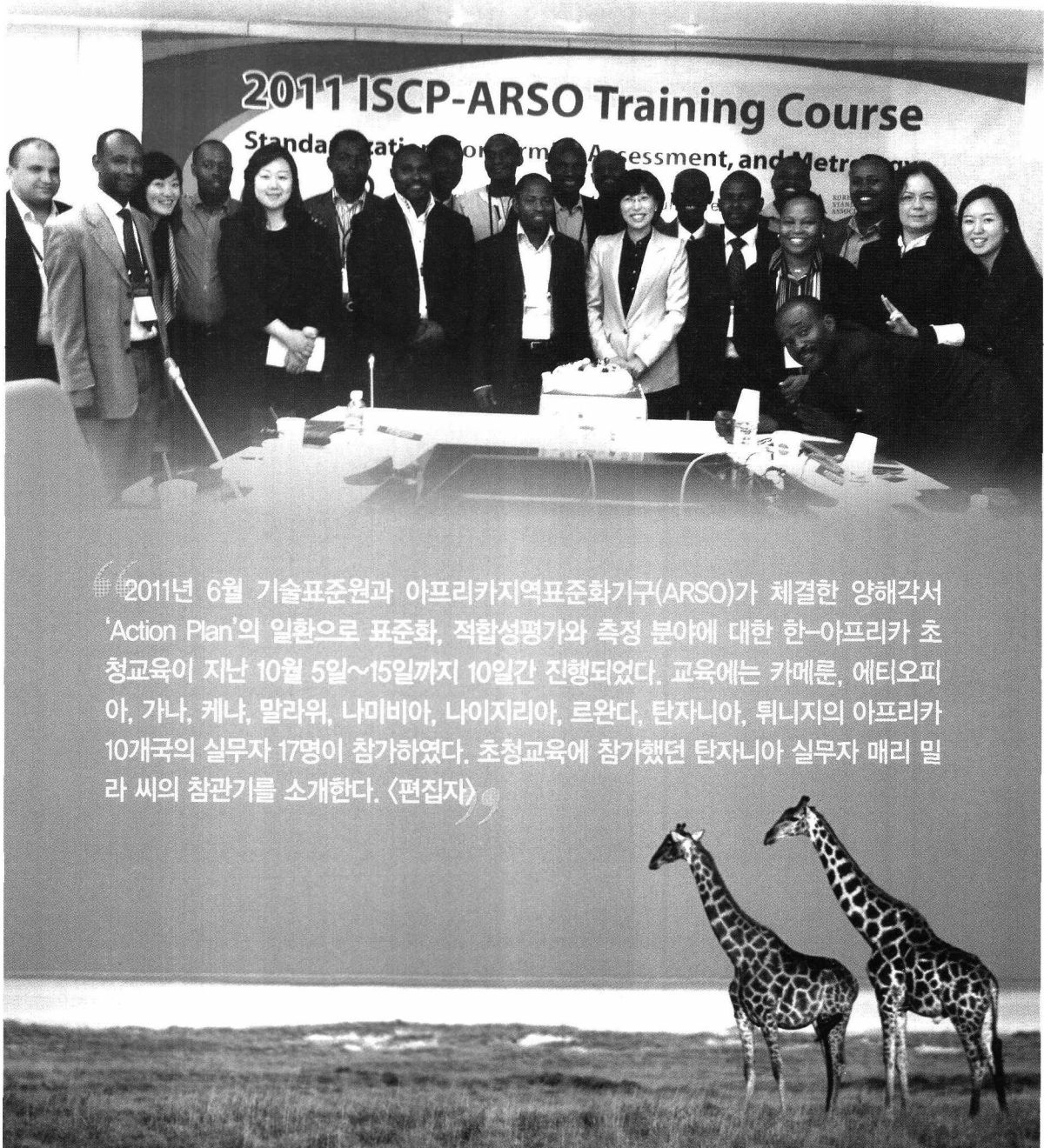


모방에서 혁신으로! 한국의 표준화 경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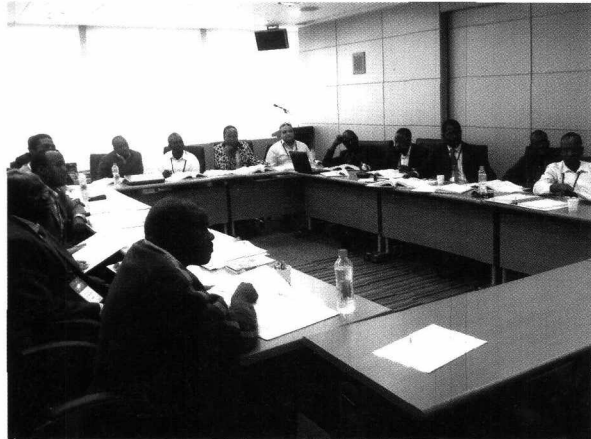
'2011-2015 Cooperation Action Plan' 일환 초청교육, 탄자니아 매리 밀라 씨 참관기



2011년 6월 기술표준원과 아프리카지역표준화기구(ARSO)가 체결한 양해각서 'Action Plan'의 일환으로 표준화, 적합성평가와 측정 분야에 대한 한-아프리카 초청교육이 지난 10월 5일~15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다. 교육에는 카메룬,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말라위,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르완다, 탄자니아, 튀니지의 아프리카 10개국의 실무자 17명이 참가하였다. 초청교육에 참가했던 탄자니아 실무자 매리 밀라 씨의 참관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 한-아프리카 초청교육 참가자 개강식.



▲ 이번 교육에선 강의와 그룹토론, 현장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한국의 표준화제도를 전수하고 표준화 인프라 구축경험을 전파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의 표준화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한-아프리카 초청교육이 지난 10월 5일~15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들은 강의를 포함해 다양한 현장교육과 그룹토론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Country Report 발표를 통해 자국의 표준화와 관련 분야의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얻게 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국 표준화 개선방안과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발표하는 세션도 운영되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열정적인 태도로 교육에 임하였고, 한국의 기술과 산업, 역사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표준화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프리카 표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며 교육기간 내내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향후 지역협력과 양자협력 등 다양한 표준화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탄자니아 출신 참석자의 교육 참관기를 소개한다.

한국인들의 자기관리 인상적

탄자니아에서 온 매리 밀래(Mary Meela)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 10월 5일~15일 기술표준원이 주최한 'ISCP-ARSO 초청교육: 표준화, 적합성평가와 측정 분야'에 참가

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탄자니아에서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한국선수가 출전한 스포츠 경기를 본 것이 제가 경험한 한국의 전부입니다. '주몽'은 한국대사관이 탄자니아에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TV를 통해 방영하였는데, 한국에 와보니 역사 드라마보다는 최근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과학기술에 대해 소개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입니다. LG, 삼성, 현대, 기아 등 세계적인 기업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기업들의 기술은 전 세계로 수출되어 아프리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삼성 핸드폰은 기술이 뛰어나 모조품이 없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모조품이 현재 국제무역에 있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조품을 잘 관리하는 기업이야말로 뛰어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대하면서 저는 그들이 모두 표준화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결같이 모두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곳, 도시 전체는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저와 동료는 큰 도움 없이도 서울을 즐기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것 같았습니다. 비만한 사람을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표준화란 최적의 질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우리가 지금 꾀하고 있는 한국의 발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통해 '970년대 한국의 GDP는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기간 내내 '아프리카 국가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또는 '한국의 발전은 단지 기적일까?' 하고 고민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발전은 기적이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근면성의 결과입니다. 모방(imitate)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결국 혁신자(innovator)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무척 놀랐습니다. 잘 지어진 도로와 건물들이 컸었고, 도시 전체가 잘 설계된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표준화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또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질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확립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Standardization is an activity of establishing with regarding to actual or potential problems, provisions for common and repeated use aimed at the achievement of optimum degree of order in a given

context.)'입니다.

서울을 보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질서(optimum degree of order in a given context)'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들 깨달았습니다.

요식업계 고기 1인분 표준화 흥미로워

지면으로나마 유익한 강의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강의가 모두 실용적이었고, 소비자를 위한 표준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레스토랑에서 파는 고기의 g수가 모두 달라 표준화한 '요식업계 고기 1인분 표준화' 사례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핸드폰 배터리 등 소비자 관련 프로젝트는 벤치마킹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적합성평가에 있어서 한국은 인적자원, 시험소를 포함한 모든 설비, 계량과 인증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인프라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고 배웠습니다. 강의에 사용했던 모든 자료와 현장 학습시 찍은 사진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 한-아프리카 초청교육 참가자들이 서울 룡은사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했다.